

뉴스 | NEWS

- ▶ 정치
- ▶ 경제
- ▶ 사회
- ▶ 국제
- ▶ 문화

중/부/마/당
독자들과 함께합니다

오/피/니/언
각계인사들의 오피니언

테/마/기/획
주제별 기획특집

문화

경기문화재단, 창작레지던스와 문화예술인 워크숍 오픈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위한 문화 공간, '비움(Bieum)'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318번지에 문을 연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민간이 공간을 제공하고, 경기문화재단이 그 운영을 맡았다는 것.

'비움'의 운영위원인 김남국(54·의사) 씨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열악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뜻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 모임이 만들어졌고 모임을 거듭하던 중 지역의 문화발전에 공헌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공간을 구하고 보니 바쁜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적극적인 문화활동에 쏟을 시간이 부족, 재단에 운영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오후 6시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비움'은 앞으로 작가거주 프로그램을 비롯해 오픈스튜디오, 문화예술관련 워크숍, 공공미술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인 작가거주 프로그램으로는 '음악창작 국제레지던스 프로젝트'가 6월부터 2개월간 운영되고, 여름에는 시각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스튜디오를 계획하고 있다. 수시 대관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워크숍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경기도미술관 등의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공유, 국제거리극학교 워크숍과 젊은 미학자대회 워크숍, 가을에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준비중인 중남미연극제의 아티스트하우스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문의 031-231-7234

강경목기자/soha@joongboo.com

게재일 : 2008.04.25

독자비평 쓰기

홈 > 뉴스 > 문화

베스트 클릭

- 경제구역 내 7~8개소 외국...
- 인천경제구역 투자유치 '초보...
- "오산시 뒷북 제재가 뉴타운...
- 수도권 남부 대표 쇼핑몰 잇...
- 수도권 규제완화 용역, 알고...
- 집 밖으로 시신 업고나와 차...
- 주식투자 실패에 자살 잇따라
- 분당서 또 귀가 초동생 성폭...
- 김포, 부동산 경기 살아나나
- 화성 농촌지역에 무허가 승마...

지역뉴스

- 남양주시, 김수리 봉사활동 ...
- 인천, 시민단체서 '시의원 ...
- 남양주시, 공작기강 해이.....
- 평택, 프로젝트담당관실 일방...
- 안양시, 자문관 위촉
- 안산 상록동, 투병동료 위문...
- 이흥재 남양주체육회 부회장....